집하장 확대로 유통구조 바로잡아야 …

본고는 채란업계가 장기간에 걸친 저난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옴에 따라 이를 조기 극복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들어보고자 지난 6월 9일 대전충남양계축협 조합을 이끌면서 양계산업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광래 조합장을 찾아 나눈 내용을 대담형식으로 정리 · 소개하였다. - 편집자주 -

김동진 = 지난해부터 시작된 저난가로 인해 대부분의 양계인들이 어려움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양계축협을 위시한 천안지역도 예외는 아닐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의 채란업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광래 =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희 조합원은 물론 충청지역 채란양계인들도 지난해부터 지속되어오는 만성적인 불황으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농장들이 경영압박을 받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양계농가에 파고든 ND, AI, 가금티푸스 등 양계질병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양계인들을 폐업, 전업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ND질병의 경우는 90%의 산란율을 보이던 계군들이 20%까지 하락하는 경우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지난 1997년 후반부터 나타났던 IMF사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함을 더해주는데, 문제는 양계를 그만두고 싶어도 사료 여신과 맞물려 부득불 양계업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농가들이 많다는데 있습니다.

김동진 = 난가하락이 지속되는 요인으로는 생산증가와 소비감소를 흔히 말하고 있는데 난가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었이며, 현재 채란업이 안고있는 당면문제는 무었이라 생각하십니까?

현광래 =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된 것은 지난 1990년 초부터 국내에 자동화 바람이 일어나면서 규모화, 단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정부에서 국제경쟁력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시설자금이 유통분야를 배제하고 생산시설만을 늘리는데 사용되어지면서 계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금도 농가에서 신청하면 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통과 가공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양계업이 풀어가야할 당면문제는 질병퇴치와 유통구조 개선이라 봅니다.

◇현광래 (대전충남양계축협조합장)

구제역과 ND질병만을 놓고 비교해 볼때 정부에서는 양계분야에 너무나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D도 제1종법정전염병인 만큼 발생한 농장은 법대로 살처분을 시키고 살처분시킨 농장에게는 응당한 대가를 해줘야 할 것이며, 구제역처럼 이동제한을 국가차원에서 강력히 규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타 산업 못지않게 양계산업도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동진 = 최근들면서 난가가 다소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생산비선 이하를 밑돌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유통의 불합리에서 오는 원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평소에 가지고 계신 지론이 있으시다면 무었입니까?

현광래 = 중간유통마진을 없애고 직거래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집하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전국물량의 17%정도를 감당하고 있는 집하장 시설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축협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GP센타를 생산자나, 상인들에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집하장 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생산자든 상인들이든 원하는 단체가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해서라도 집하장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유통상인들이 이곳을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이럴경우 질병전파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상인들의 농장출입을 막음으로써 생산자들은 보다 위생적인 계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부수적으로 생산조절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계란에 대해 도매시장 기능을 갖춰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중시세, 후장기 등으로 혼란을 가져오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김동진 = 전국의 많은 양계인들이 앞으로의 채란경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합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의 채란양계산업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광래 = 이대로 가다가는 금년하반기에 좋을 것으로 예상되던 채란경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부화장에서 나오는 병아리가 여전히 중추장으로 이동하고 경영난으로 인해 부도가난 농장이 주인만 바뀌고 다시 닭들이 계속적으로 산란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보니 낙관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노계를 팔아 신계를 교체하려해도 자금이 없어서 환우에 들어가는 농가들도 있어 생산증가를 부추길 뿐 아니라 농가의 부실만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쉬운 것은 금년초에 정부에서 추진한 400만수의 노계가 계획대로 처리만 되었어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많이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조합에서도 이 사업에 동참을 하였으나 수매계획이 발표되자 4월달에 다시 노계가격이 올라가면서 정상적인 수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남이 줄일때 나는 버틴다는 생각을 가진 생산자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양계업의 앞날은 결코 밝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동진 = 생산자들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위해 수수감축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현광래 = 생산감축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중에 3수를 넣어기르던 케이지에 2수를 넣은 농가들을 보면 질병발생이 적고 산란수가 많아 생산성이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 효과를 보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생산감축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계란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파란이나 오란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5%정도의 계란을 팔지 말고 폐기처분시키면 전국적으로 1일 5%정도의 계란생산을 감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에서 검사제 등을 도입하여 규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위생이 중시되어지는 세상에 완벽한 계란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즉 계란으로 볼때 비축과 수매는 임기응변의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계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처럼 가공란의 비중이 크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이 원란으로 소비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자, 조합, 협회가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자조금 조성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합

과 협회가 양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같은 목적을 갖고 설립이 되었지만 현재는 서로 다른 독립단체로 역할이 서로 다르다보니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은 유통을 책임지고, 협회는 대정부와의 협조를 구하면서 서로간의 융화를 이루어나갈 때 자조금 조성 등 양계업 활성화에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진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전충남양계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래 = 저희 양계조합은 지난 1988년 당시 농림수산부로부터 설립인가를 취득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만들어 질때는 의욕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신규투자, 경제사업 확대 등이 이루어지다 보니 어려움을 겪어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부터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은 최종소비지에 갈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란을 생산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상인들이 직접 농장으로부터 계란을 가져가더라도 상품성이 떨어질 경우 언제든지 조합에서 책임을 맡아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상인들이나 조합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직접 조합원 농장을 방문하여 사양일지를 함께 작성해주는 등 조합원들에게 보다 친밀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협에서는 향계촌을 브랜드화하여 소비자들에게 깊게 파고든 상태이고, 계란으로 만든 골드에그를 심혈을 기울여 제품개발에 성공, 곧 대량생산체계를 계획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경우 많은 양의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어려움이 시금석이되어 양계산업에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 계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동 광 공 업

대 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23)374-8461~2, 팩 스 : (0523)375-8461
휴대폰 : 011-374-8461~2